

《瀛涯勝覽》 解題 및 譯註(1)*

崔琇景·宋貞和·鄭有善·金曉民**

<목 차>

1. 《瀛涯勝覽》 解題
 - 1.1 鄭和 대원정과 중국이 발견한 ‘세계’
 - 1.2 馬歡과 《瀛涯勝覽》
 - 1.3 《瀛涯勝覽》의 異本
2. 《瀛涯勝覽》 譯註
 - 2.1 序
 - 2.2 瀛涯勝覽序
 - 2.2 紀行詩

1. 《瀛涯勝覽》 解題

1.1 鄭和 대원정과 중국이 발견한 ‘세계’

전근대 시기의 중국인들에게 중국은 세계의 일부가 아니라 사방의 夷들로 둘러싸인 ‘中華’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明代를 거치며 이러한 중국 중심의 화이론적 세계관은 상당히 동요되었다. 흔히 중국인들의 세계 관념의 변화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요 사건으로 萬曆 연간의 예수회 선교사들과 중국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3068727).

** 제1저자: 崔琇景(高麗大學校 中國學研究所 研究教授)
교신저자: 宋貞和(高麗大學校 中國學研究所 研究教授), 鄭有善(祥明大學校 教育大學院 中國語教育專攻 助教授), 金曉民(高麗大學校 世宗캠퍼스 中國學專攻 教授)

지식인들의 만남을 든다. 이들이 도입한 지동설과 地球論 등 서구의 천문학적 지식이 일부 지식인들의 중국 중심 세계관에 균열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이 자신들과 세계의 관계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계기가 단순히 이러한 외부적 충격만은 아니다. 이들은 이미 훨씬 이전부터 외부 세계를 파악하고 있었다. 元代에 이미 중국인들은 전통적 華夷 관념으로는 해독할 수 없는 거대한 세계가 중국 밖에 존재함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지도를 통해 세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줄도 알았다.¹⁾ 이러한 지리적 지식이나 제도술은 아마 서양 세계보다 훨씬 앞선 것이었을 터이다.

명대 중엽 이후 폐쇄적, 내부지향적으로 변하기 이전 중국의 해양 진출의 의지와 활력을 보여주기 위해 가장 흔하게 꼽는 사례가 바로 鄭和의 대원정이다.²⁾ 환관이었던 정화는 7번에 걸친 원정을 통해 1405년에서 1433년 사이 한 번 혹은 여러 번 수마트라, 자바, 실론, 호르무즈, 아덴, 그리고 동 아프리카까지 항해하였다. 일곱 차례의 항해를 위해 동원된 선박이 이백여 척이었고 동원된 인원이 2만7천8백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³⁾ ‘寶船’이라 불렀던 정화의 배는 그 자체로도 엄청난 수준이었지만 정화 일행은 이 배들을 이끌고 차례로 蕃國을 방문하여 천자의 조서를 전하고 조공 관계를 맺으며 복종하지 않는 이

- 1) 유명한 조선의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1402년 제작, 일본 龍谷大學 소장)는 아라비아와 아프리카 대륙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지도는 跋文에서 元代의 지도인 <聲教廣被圖>와 <混一疆理圖>를 수정하고 합하여 제작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명대 초기인 1386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大明混一圖> 역시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와 유사한 세계지도이다. 미야 노리코 지음, 김유영 옮김, 《조선이 그린 세계지도 - 몽골 제국의 유산과 동아시아》(서울: 소와당, 2010)에 이 지도들에 대한 상세한 고증과 설명이 실려 있다.
- 2) 鄭和(1371?-1433?)는 명대 초기의 太監으로 雲南 昆陽 사람이다. 三寶, 혹은 三保라고도 한다. 일설에는 원래 성이 馬씨였다고 한다. 《明史·鄭和傳》에는 단지 “鄭和, 雲南人, 世所謂三保太監者也”라고 되어 있을 뿐 다른 사적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홍무 13년(1381)에 명의 군대가 운남으로 들어왔을 때 잡혀서 宮刑을 당해 환관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14세에 후에 영락제가 되는 朱棣의 燕王府로 들어가 일했다고 한다. 영락2년(1404)에 정화는 內官監 太監까지 오르는데 지략과 병법에 뛰어나 영락제의 신임을 얻었다. 1405년부터 33년까지 7차례에 걸쳐 함대를 이끌고 西洋으로 원정을 떠난다. 宣德 8년(1433) 4월에 인도 서해안의 古里國에서 사망한다.
- 3) 《鄭和下西洋論文集》 第1集, 人民交通出版社, 1985, <前言> 참고.

들은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등 상당히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했던 듯 보인다.⁴⁾ 정화의 항해는 당시 중국적 천하관이 현실 정치에서 발현되었다고 할 수 있는 조공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실증적인 지리 지식, 항해술, 선박 건조술 등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정화의 원정에 동행했던 수행원들이 직접 기록한 저서 역시 이 직후 등장한다. 본고에서 다루려고 하는 《瀛涯勝覽》 역시 정화 원정대의 기록의 일환으로 《星槎勝覽》, 《西洋番國志》와 함께 정화가 발견한 ‘세계’와 관련된 지식을 알리는 주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정화의 항해가 시작된 이유로 명대 당시에는 실종된 建文帝를 찾기 위해서라는 설이 유력하게 대두되었지만⁵⁾ 학자들은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 대신 영락제의 힘과 위세를 과시하고 조공 관계를 확대하고 신기한 이국의 동식물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는 등의 이유가 제시되었다.⁶⁾ 사실 정화의 항해는 명대 전체 역사를 통틀어 보면 다소 예외적인 시기의 예외적인 사건이라 할 수도 있다. 명대는 외부로 영토를 확장하기보다 내부적 단일성과 통일성을 지향했던 제국이었다.⁷⁾ 그러나 영락제 시대만은 예외였다. 조카 건문제를 밀어내고 왕위에 오른 영락제는 다섯 번이나 몽고 원정에 나섰고 安南(베트

4) “큰 배를 건조했는데 길이는44丈, 넓이가 18丈인 것이 62척이었다. …… 먼저 占城에 도착하고 차례대로 番國을 돌아다녔다. 천자의 조칙을 반포하고 하사품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 임금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위협하였다(造大船, 修四十四丈, 廣十八丈者六十二. … 首達占城, 以次遍歷諸番國, 宣天子詔因給賜, 其君長不服則以武懾之.)”(《明史·列傳》 卷三百四, 宦官 一) 이에 의하면 정화의 보선은 길이 150미터, 폭 60미터의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물론 기록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5) 沈德符는 “어린 황제는 지하도를 통해 탈출했고 종적을 전혀 알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영락제는 張三豐을 찾는다는 핑계로 胡濙을 파견했는데, 실제로는 건문제가 지방에 숨어 반란을 일으킬 것을 의심했던 것이다. 또 태감 정화를 바다로 보내 여러 나라들을 두루 돌아보게 했는데도 결국 소식을 듣지 못했다.(少帝自地道出也, 蹤迹甚秘, 以故文皇帝遣胡濙托訪張三豐爲名, 實疑其匿地方起事, 遣太監鄭和浮海, 遍歷諸國, 而終不得影響.)”(《萬曆野獲編》 卷一 <列朝>, ‘建文君出亡’)라고 하며 정화 대원정의 원인을 건문제를 수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명대 당시 널리 통용되던 견해였고 근대 이후에도 여전히 거론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6) 车復禮·崔瑞德 編, 《劍橋中國明代史》 上卷,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8, 229쪽.

7) 명 제국의 一統的 세계관과 지리 관념에 대해서는 최수경, <명대 후기 출판을 통한 지리학적 지식의 전파와 그 의미>, 《중국어문논총》 제69집, 2015, 6 참고.

남)을 정벌하여 다시 일시적으로 중국의 지배하에 두기도 하였다. 정화의 항해 역시 권력과 위세를 과시하기 좋아했던 영락제 시대의 유산이라는 해석이 그래서 가능하다. 하지만 영락제 이후 海禁을 반복해서 내리면서 명 조정은 더 이상의 해상 진출을 중지했고 정화의 원정과 같은 사례는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다.⁸⁾ 오히려 이후에 조직적으로 정화에 관한 기록을 은폐하거나 훼손시키려 했다는 의심마저 제기되었다.⁹⁾ 물론 연안 지역의 중국 상인들은 여전히 교역을 계속했지만 명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김수연은 정화 사후 2세기가 지난 뒤부터 중국인들은 그를 잊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망각은 西洋으로의 원정을 반대하고 海禁을 주장하는 조정 내의 대신들 때문에 의도적으로 빚어진 것이라고 하였다.¹⁰⁾ 한편 거시적 관점에서는 정화의 원정을 중국 해상 팽창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환관 세력이 몰락하고 해양 진출을 반대하는 관료들이 득세한 이후 정화 원정은 중단되었다. 중국은 이 시점부터 “농업에 절대적 가치를 두는 자기충족적 고립주의”의 길을 걸으면서 해양 진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동서양 간의 불균형이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견해도 있다.¹¹⁾ 때문에 현재 정화에 쏟아지는 엄청난 찬사와 의미 부여는 사실 현대 중국이 모종의 필요에 의해 새롭게 발굴해 낸 의미일 뿐 정화의 항해 그 자체의 문명사적 의미는 현재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의 해양 시대의 정점이나 종언, 더 나아가서는 중국이 세계 문명의 중심으로써 역사의 무대에서 진행한 마지막 이벤트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8) 티모시 브룩 지음/조영현 옮김, 《하버드 중국사 원·명: 곤경에 빠진 제국》, 너머북스, 2014, 430쪽.

9) 嚴從簡의 《殊域周咨錄》 제8권 <眞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정화 해양 원정에 관한 문서 <鄭和出使水程>이 원래 존재했으나 成化연간에 황제의 명으로 이를 찾으려 했으나 車駕郎中인 劉大夏가 이를 감추고 도리어 정화 해양 원정의 막대한 손실을 거론하며 관련 문서는 마땅히 없어야 한다고 큰 소리를 쳤다는 것이다. 劉大夏가 정말로 정화 관련 문서를 파기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관련 문서가 사라진 탓으로 도리어 정화에 관한 역추과 소문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

10) 김수연, <정화(鄭和)와 중국의 제국의식>, 《중국학보》 제77집, 2011.

11) 주경철, 《대항해시대: 해상 팽창과 근대 세계의 형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13-21쪽 참고.

하지만 현대 중국의 역사 관념이나 의식을 가늠하기 위해, 혹은 문명사적 관점에서 거시적인 지형도를 그려내기 위해 정화의 항해를 해석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14세기 초반 신생 帝國이었던 明의 세계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창구로 ‘鄭和下西洋’이라는 현상을 바라볼 필요도 있다. 당시의 정화 일행이 얼마나 거대한 선단을 거느렸고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는지는 차치하고 결국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것은 실존으로서의 정화 일행과 異國이 아니라 이국의 풍경과 관찰자, 피관찰자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재현’ 뿐이다. 이러한 ‘재현’이 얼마나 당시 현실의 상황을 충실하게 전달하건 그 자체는 결코 현실이 될 수 없다. 재현이란 눈에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가 선험적 지식과 표준 준거에 의해 해석한 지식과 정보를 당시의 관습적인 재현 수단과 체제에 의해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재현물에서 정화의 항해나 異域, 그 자체를 온전히 체험할 수는 없다. 그보다 이를 통해 이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제국의 존엄, 異國을 바라보는 명대인들의 시선, 이역에 관련된 고전적 지식과 상상의 축적 등을 읽을 수 있다. 이는 곧 세계를 바라보는 14세기 초반 중국인들의 인식과 시각이기도 하다.

1.2 馬歡과 《瀛涯勝覽》

《瀛涯勝覽》은 저자 馬歡(생졸년 미상)이 정화의 원정을 세 차례 수행한 뒤 이를 기록한 책이다. ‘瀛’이란 大海를 가리키고 ‘涯’은 바다의 끝을 의미한다. ‘勝’은 아름다운 풍경 혹은 명승지를 가리킨다. 즉 이 책 제목은 ‘해외기행문’을 의미한다. 마환은 浙江 會稽(지금의 紹興)의 回族 출신 역관으로 아랍어 통역을 위해 정화 원정대를 수행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마환의 출신 민족과 종교에 대한 직접적 기록은 古朴이 쓴 《瀛涯勝覽·後序》에 나온다. “郭崇禮는 항주의 仁和 사람이고 마환은 吳越의 會稽 사람이다. 모두 서역의 天方教를 믿으니

사실상 세속에서 볼 수 없는 빼어난 선비들이다.”¹²⁾ ‘天方’이란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를 지칭하며 아랍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는 정화의 원정대에서 통역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스스로 《영애승람》 서문에서 “나는 이국의 책을 번역하였기에 역시 사신의 말단으로 참여하게 되어 그(정화)를 따라 가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瀛涯勝覽·後序》에서는 “옛날에 태종 황제께서 태감 정화에게 칙령을 내려 보선을 이끌고 西洋의 여러 번국들에 가서 조서를 낭독하고 하사품을 내리게 하셨다. 두 사람(馬歡과 郭崇禮)은 외국어를 통역하는 데 뛰어나 여기에 선발되었다.”라 하였다.¹³⁾ 그는 1413년(제4차), 1421년(제6차), 1431년(제7차),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정화를 수행하여 원정에 참여한다. 그는 이 세 차례의 경험을 《瀛涯勝覽》이라는 책으로 엮는데 여기에는 항로, 해류, 지리, 외국의 정치와 문화, 풍토, 토산품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에 수록된 나라는 총 20개국인데 占城國을 필두로 하여 爪哇國, 舊港國, 暹羅國, 滿刺加國, 啞魯國, 蘇門答刺國, 那孤兒國, 黎代國, 南淳里國, 錫蘭國, 小葛蘭國, 柯枝國, 古里國, 溜山國, 祖法兒國, 阿丹國, 榜葛刺國, 忽魯謨斯國, 天方國 등이다. 이들은 모두 당시 존재하던 동남아, 인도양, 중동과 아프리카의 왕국들이다.

《영애승람》은 異本이 매우 다양한데 구성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본상황은 아래 참조) 본문 앞에는 馬歡의 自序와 馬敬의 序가 있고 뒤에는 古朴의 後序가 있다. 목록 뒤에 정화의 寶船의 크기와 수행했던 관리들의 숫자, 그들의 관직명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구성은 이본마다 포함되기도 하고 빠져 있기도 하다. 본문 역시 이에 따른 異同이 적지 않아 글자나 문장이 달라지거나 내용이 축소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成書 시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기록을 통해 추측이 가능하다. 마환의 자서에는 ‘永樂十四年黃鐘月’이라고 年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1416년 11월이다.

12) “崇禮乃杭之仁和人, 宗道乃越之會稽人. 皆西域天方教, 實奇邁之士.” 古朴, 《瀛涯勝覽校注·後序》

13) “余以通譯番書, 亦被使末, 隨其所至.” “昔太宗皇帝勅令太監鄭和統率寶船往西洋諸番閱讀賞勞. 而二君善通譯番語, 遂膺斯選.”

馬敬의 序에는 ‘正統甲子菊月前一日’, 즉 1444년 9월로 기록되어 있다. 또 본문의 ‘天方國’ 조에 ‘景泰辛未秋月望日會稽山樵馬歡述’이라는 기록도 있는데 이는 1451년이다. 宋立民은 古朴의 後序에 “이 해에 감찰어사인 내가 책을 널리 알릴 것이다(是世監察御史古朴劇弘書)”라는 대목을 경태 신미년에 이 책을 인쇄하여 전파시킬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¹⁴⁾ 이러한 기록을 종합하여 그는 마환이 이 책을 처음 완성한 것은 1416년이고 이후 1451년경에 출판된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발견된 또 하나의 필사본인 ‘藝海彙函’본의 後序에는 ‘正統己巳正月既望監察御史古汴劉泓’이라는 필사기가 적혀 있다. 그래서 萬明은 이 후서는 1449년 汴梁의 劉泓이 쓴 것이며 ‘예해회합’본은 1449년의 저본을 필사한 것이라 주장한다.¹⁵⁾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고증이 필요할 것이나, 이렇게 여러 이본에서 각기 다른 成書 시기가 발견되는 것은 馬歡 자신이 여러 차례 수정을 했거나 초기에 필사본으로 전파되었던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마환이 처음 이 책을 집필한 것은 1416년이었을 것이나, 그 이후 여러 번 수정을 거치며 몇 가지 異本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읽히고 필사되면서 이처럼 여러 연도가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화의 원정 이후 이를 기록한 책은 《영애승람》 외에 《西洋番國志》(鞏珍 撰)와 《星槎勝覽》(費信 撰)이 있다. 《西洋番國志》는 1434년에 완성되었는데 비신 역시 정화의 원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나 단 한 번에 불과했다. 이 책의 구성과 순서, 국가의 명칭 등은 《영애승람》과 동일하며 내용도 상당히 유사하다. 이 책의 自序에는 “기록되어 있는 각국의 사적들이나 보고 들은 일, 혹은 그 곳에서 돌아다니며 알아본 것들은 중국어와 외국어 모두 역관의 통역을 통해 얻은 것이다(所紀各國之事迹, 或目及耳聞, 或在處詢訪, 漢語番語悉憑通事轉譯而得)”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 비신은 마환과 달리 한족이었기 때문에 역관의 도움이 없이는 소통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어떤 학자는 玠珍

14) 宋立民, <《瀛涯勝覽》板本考>, 《古籍整理研究學刊》, 1988年 第二期.

15) 萬明, <馬歡瀛涯勝覽原流考 - 四種明鈔本瀛涯勝覽校勘記>, 《多元視野中的中外關係史研究 - 中國中外關係史學會第六屆會員代表大會論文集》, 2005.

이 말한 ‘通事’는 아마 마환일 것이며 그 역시 마환의 기록을 이용했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하였다.¹⁶⁾ 더구나 이 책은 줄곧 간행이 되지 않아 유실된 것으로 여겨지다가 20세기에 와서야 필사본이 발견되어 출판된다. 때문에 이 책은 영향력에 있어서는 《영애승람》보다는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星槎勝覽》의 저자 비신은 네 번이나 정화를 수행했고 1436년에 이미 이 책을 완성했으며 《영애승람》보다 수록 국가나 지역이 27개가 더 많다.¹⁷⁾ 하지만 각 조목에 수록된 내용을 비교해보면 《영애승람》이 《성사승람》보다 분량이 2-3배가량 많다. 《성사승람》은 대체적으로 각 조목의 내용이 대단히 간략하고 해당 지역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나 시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평이 있다.¹⁸⁾ 때문에 ‘鄭和下西洋’을 기록한 이 3종 가운데 보편적으로 사료적, 문헌적 가치를 가장 높게 인정받는 것은 《영애승람》이다. 正史에서는 정화를 많이 언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료를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진 것 역시 《영애승람》의 영향이 크다 하겠다. 1598년 羅懋登의 장회소설 《三保太監西洋記通俗演義》 등의 통속문학에 정화의 원정이 주제로 등장하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¹⁹⁾

하지만 《영애승람》이 이역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나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단언 내리기는 어렵다. 《영애승람》의 서술 방식은 보통 향로와 여정 - 이역의 지리 - 왕이나 우두머리 - 사람들의 복식과 풍습 - 동식물과 토산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송대의 《諸蕃志》(趙汝适 撰)에서도 이미 찾

16) 向達 校注, 《西洋番國志》, <校注序言>, 北京: 中華書局, 2000.

17) 《영애승람》에는 없고 《星槎勝覽》에만 있는 나라나 지역은 다음과 같다. 賓童龍國, 靈山, 昆侖山, 交欄山, 九洲山, 龍牙犀角, 龍涎嶼, 翠藍嶼, 刺撒國, 眞臘國, 東西筑, 淡洋, 龍牙門, 龍牙菩提, 吉里地悶, 彭坑國, 琉球國, 三島, 麻逸國, 假里馬打國, 重迦邏, 渤泥國, 蘇祿國, 口具喃國, 竹步國, 木骨都束國, 卜刺哇國.

18) 張箭, <馬歡의族屬與《瀛涯勝覽》의地位>, 《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科版》, 2005年, 第26卷.

19) 이 작품은 100회로 구성된 장회소설로 《三寶太監西洋記》 혹은 《西洋記》라고도 부른다. 정화의 7차례 해양 원정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민간에 친숙한 초현실적 설정을 덧붙여 명대 유행했던 神魔小說로 개편한 작품이다.

아볼 수 있는 서술 체계이기도 하다. 물론 《諸蕃志》 역시 이전의 문헌에 나타난 이역과 관련된 재현 방식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역을 재현하는 방식은 글쓰기 관습과 이역에 관해 축적된 인식이나 상상을 통해 일종의 패턴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러한 전통이 《영애승람》에도 전승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반면 回族이자 이슬람교도였던 마환은 문화적, 사회적 비주류에 속했다. 또한 《영애승람》은 이전 문헌에 비해 훨씬 내용이 구체적이며 묘사적이다. 비록 서문에서는 관방의 시각을 충실히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비주류가 이역을 어떻게 해석했으며 이것이 기존의 시선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할 필요도 있다. 즉 《영애승람》에 담긴 내용뿐 아니라 재현 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瀛涯勝覽》을 단순한 史料가 아니라 이역에 관한 명대인들의 재현물로 읽어야 하는 이유 역시 여기 있다.

1.3 《瀛涯勝覽》의 異本

《영애승람》의 이본은 상당히 복잡한 편인데 특히 필사본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정화의 원정에 대한 기억이 망각되고 사료가 멸실되었던 명대 중후기에도 여전히 명대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 책이 여전히 필사되었고 인기를 누리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어떤 판본을 번역 저본으로 선택할 것인가는 번역의 질적 수준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여기서 판본의 문제를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영애승람》 이본은 다음과 같다.

명칭	종류	제작 시기(소장처)	특징
張升刪節本	刊本	1522년(中國國家圖書館 등)	張昇 輯. 일명 《瀛涯勝覽集》. 대대적인 축소 및 삭제. 19개국만 수록. 서문은 하나도 없고 본문도 많이 삭제. 최초의 刊本.
藝海彙函本	간본	1606년(南京圖書館)	梅純 輯. 유일한 二卷本. 18개국만 수록되었고 내용도 다른 이본들과 많은 차이가 있음. 後序의

			연도는 1449년이며 後序의 서명이古朴이 아닌 劉泓仁
寶顏堂秘笈本	간본	明萬曆年間(中國國家圖書館 등)	陳繼儒 輯. 張升刪節本을 저본으로 함
紀錄彙編本 20)	간본	1617년(中國國家圖書館 등)	沈節甫 輯. 총서 紀錄彙編 卷62에 수록. 가장 완전한 足本으로 평가됨. 마환 자서와 고박 후서만 있고 마경 서문과 보선관련 자료는 없음. 마환의 定稿本 계통이라 윤색한 흔적 보임.
紀錄彙編本	간본	1617년(中國國家圖書館 등)	총서 紀錄彙編 卷63에 수록. 張升刪節本을 저본으로 함
廣百川學海本	간본	明末(中國國家圖書館 등)	馮可賓 輯. 張升刪節本을 저본으로 함
續說郛本	간본	1646(中國國家圖書館 등)	張升刪節本을 저본으로 함
勝朝遺事本	간본	1842년(中國國家圖書館 등)	吳彌光 輯. 총서 勝朝遺事 第二編第一卷에 수록. 마환 자서만 있고 다른 서문들은 모두 생략. 생략 및 수정된 부분이 비교적 많음
三寶征夷集	필사본	1451년 이후로 추정(中國國家圖書館)	北京圖書館에 유일본 소장. 書目에서는 '征彝'로 표기. 馬歡自序와 古朴後序만 있고 馬敬序 없음. 목록 뒤 寶船의 크기, 원정 참여 관리 숫자 및 관직이 수록됨. 기존의 필사본들을 모두 집대성했다는 평가. 그러나 필사 과정의 오류가 대단히 많음
國朝典故本	필사본	1542년(中國國家圖書館)	朱當泗 輯. 마환의 원본에 가장 근접했다는 평가. 윤색을 거치지 않아 기타 이본들과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음.
說集本	필사본	미상(北京科學院圖書館)	현재 유일본. '吏白齊舊本重雕'라고題한 叢書 중에 第二函 山部에 수록. 1451년에 완성된 馬歡의 定稿本을 필사한 것. 고친 흔적이 비교적 많음
淡生堂本	필사본	미상(福建圖書館)	祁承燦(1563-1628)輯. 현존본은 祁씨 자신이 아닌 後人の 필사로 추정됨. 說集本과 같은 계통이나 오류가 더욱 많음.
天一閣本	필사본	明代(羅繼祖 소장)	마환 자서와 마경 서문만 있고 고박 후서와 보선 관련 자료는 없음. 생략된 부분이 비교적 많음.
馮承鈞校注本	인쇄본	1935년	紀錄彙編本을 저본으로 삼고 勝朝遺事本과 國朝典故本을 참조하여 校注를 부가함

20) 총서인 '紀錄彙編'(明 沈節甫 輯)에는 두 종류의 《영애승람》이 있는데 하나는 足本 계통

현재 발견되는 《영애승람》 異本들은 크게 刪節本과 足本 혹은 필사본과 刊本으로 나눌 수 있다. 프랑스 학자인 P. Pelliot(1878-1945, 伯希和)가 《영애승람》의 이본을 검토하면서 馬歡 原本류와 張升 改編本류로 나눈 이래²¹⁾ 많은 학자들이 이 구분을 따랐다. 실제로 張升本을 저본으로 한 이본이 유달리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것이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승조 유사본 역시 사실상 개편본이며 국조전고본과 천일각본 역시 대대적으로 생략과 수정을 거친 刪節本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宋立民은 (1) 足本류(삼보정이집본, 설집본, 기록회편본) (2) 刪改本류(천일각본, 국조전고본) (3) 개편본류(승조유사본) (4) 張升刪節本류 로 나누었다.²²⁾ 최근 萬明은 예해회합본의 발굴과 함께 마환 원본류를 다시 初稿本류(국조전고본), 定稿本류(설집본, 담생당본, 기록회편본), 이 둘을 합한 집대성본류(삼보정이집)으로 나눈다. 개편본은 초기 개편본(예해회합본)과 후기 개편본(장승개편본과 이를 저본으로 한 이본들)으로 나눈다.²³⁾ 그는 또 초고본은 대략 永樂14년(1416)에서 正統9년(1444) 동안에, 定稿本은 정통9년에서 景泰2년(1451)에, 집대성본은 그 이후 명대 후기까지 형성되었을 것이라 추측한다. 즉 《영애승람》은 마환의 손에서도 수정을 거쳤지만 그 이후 여러 사람에게 필사되는 과정에서 더욱 많은 변화를 겪은 것이 분명하다. 원본일수록 언어가 덜 다음어지고 직설적이며 개편본이나 산절본일수록 언어가 정련되고 우아한 특징을 보인다. 이는 아마 회족 무슬림인 마환의 언어를 중국 문인들이 수용하고 전파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현상일 것이다.

상기 이본들 중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馮承鈞校注本이다. 1935년 출간된 이 교주본의 서문에서 馮承鈞(1887-1946)은 張昇本이 많이 전파되기는 했지만 생략이 지나치다며 가장 충실하다고 평가받던 紀錄彙編本을 저본으

이고 하나는 刪改本 계통이다. 두 책은 의거하고 있는 저본이 다르다.

21) "Les grands voyages maritimes chinois au début du XV^e siècle", *T'oung Pao*, 30(3/5):237-452. 이 논문은 馮承鈞이 《鄭和下西洋考》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여 출간한다(商務印書館, 1935년).

22) 宋立民, <瀛涯勝覽版本考>, 《古籍整理研究學刊》, 1988年 第2期.

23) 萬明, 위의 논문.

로 삼고(풍승균의 주에는 原本이라 표현함) 승조유사본과 국조전고본을 함께 참고하겠다고 밝힌다. 그리고 원래 기록회편본에 없던 마경의 서문도 포함시킨다. 아래에 실려 있는 紀行詩는 기록회편본과 국조전고본에만 수록되어 있으나 풍승균에 의하면 국조전고본은 오탈자가 너무 심해 해독이 어려워 羅懋登의 《西洋記通俗演義》와 비교하여 교감을 진행했다 하였다. 풍승균은 당시 三寶征彙集은 보지 못했지만 이후 三寶征彙集도 발굴되어 출간되었다.²⁴⁾ 三寶征彙集은 문헌적 가치는 대단히 높지만 이에 의거한 간본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영애승람》의 전파의 역사에 있어서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더구나 필사 과정의 오류가 너무 지나쳐 종종 “상식을 벗어나는”²⁵⁾ 정도라 번역의 저본으로 삼기에는 적당치 못하다. 이 외에 祁承燦의 淡生堂 필사본은 《四庫全書存目叢書》 史部 卷255에 수록되어 있어 이를 중요 이본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이는 說集本과 같은 계통이다. 이를 교감한 萬明에 의하면 이 필사본은 說集本과 동일하게 馬歡의 定稿本을 저본으로 삼았지만 이 淡生堂본은 설집본보다 오류가 더욱 많다고 한다. 祁承燦 자신이 편찬한 《淡生堂藏書目》에는 영애승람의 저자를 馬汝欽이라 했으나 현존하는 淡生堂本에는 이러한 이름이 없고 부가되어 있다는 瀛涯紀行詩 역시 찾아볼 수 없다. 萬明은 이러한 상황을 들어 祁承燦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필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²⁶⁾ 때문에 본고에서는 마환의 원본에 가까우면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紀錄彙編本을 저본으로 삼고 다른 이본은 물론 관련 참고자료까지 두루 섭렵한 풍승균교주본을 번역의 원본으로 채택하였다.

《영애승람》의 번역은 국내에서는 점성국 부분만을 번역한 역주 한편이 있고²⁷⁾ 일본어와 영어로는 이미 완역, 출판되었다. J. V. G Mills의 영역본과 小川博의 일역본 모두 풍승균교주본을 저본으로 삼고 여기에 상세한 주석과

24) 萬明, 《明鈔本瀛涯勝覽校注》, 北京: 海洋出版社, 2005.

25) 萬明, <馬歡瀛涯勝覽原流考 - 四種明鈔本瀛涯勝覽校勘記>.

26) 萬明, <馬歡瀛涯勝覽原流考 - 四種明鈔本瀛涯勝覽校勘記>, 《多元視野中的中外關係史研究—中國中外關係史學會第六屆會員代表大會論文集》, 2005.

27) 이승신, <《瀛涯勝覽》 소개 및 역주 - 점성국(占城國, Čampa)>, 《中國散文研究集刊》, 2017, vol.7, pp. 53-78.

해설을 덧붙인다.²⁸⁾ 특히 영역본은 서양과 중국의 관련 연구 성과를 모두 집대성한 중요한 저작이다.²⁹⁾ 현재 국내에서는 《영애승람》에 관한 연구가 단 한 편도 없는데 이는 번역의 부재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 책이 제공하는 15세기 초반의 실증 자료들은 중국의 정치사, 외교사, 문화사를 재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동남아와 인도, 중동과 아프리카의 근세사와 지리학 연구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동남아와 인도양 인근에서 근세에 존재했다가 사라졌던 많은 왕국과 그 곳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알려주는 자료는 극히 드물다. 그러한 점에서 이 책이 제공하는 많은 실증 자료들은 근세시기 세계사 서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외부 세계와 중국이 새롭게 관계 정립을 하는 과정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정화의 원정 자체는 물론 중국인의 華夷의 세계관에 기반하고 있지만 《영애승람》의 묘사와 재현을 통해 사방의 夷狄들이 중국을 둘러싸고 있다는 전통적, 관념적 지리관에서 벗어나 중국인들이 외부 세계를 객관적, 실증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고대적 세계관과 지리 관념이 어떻게 수정되는지, 이를 통해 중국과 非중국의 경계가 어떻게 새롭게 구획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明제국이 표방하는 一統의 세계관을 어떻게 균열시키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明代 중국인들이 중국과 세계를 둘러싼 관념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풍승균교주본 서두에 실려 있는 馬敬의 서문과 馬歡의 自序, 그리고 紀行詩에 대한 역주를 진행하였다. 정화의 대항해와 그 견문을 기록한 《영애승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칭송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馬敬의 서문과 馬歡의 자서에는 마환이 대항해에 동참하게 된 계기와 과정에

28) J. V. G. Mills, *Ma Huan Ying-yai-Sheng-lan: the Overall Survey of the Ocean's Shores 1433*,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小川博 譯註, 《瀛涯勝覽: 鄭和西征見聞錄》, 東京: 吉川弘文館, 1969; 《中國人の南方見聞錄: 瀛涯勝覽》, 東京: 吉川弘文館, 1998.

29) Mills는 이 외에 《嶺外代答》과 《제번지》, 《성사승람》도 영문으로 번역했지만 출판은 하지 않았는데 1990년대에 모두 발견되어 소개되었다고 한다. (Roderich Ptak, "Ma Huan (original author), Wan Ming (ed.) Ming chaoben 'Yingya shenglan' jiaozh", *Autour de la peinture à Java. Volume II IN: Archipel* 71(1):240-244)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짧은 글들이지만 저자와 당시 ‘중국’인의 異域 인식의 한 단면을 엿보게 해주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풍승균의 교주에는 【원주】, 번역자들의 주석에는 【역주】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2. 《瀛涯勝覽》 譯註

2.1 서

옛날 蕭何는 咸陽에 들어가 오직 도서들만 거둬들였고, 房玄齡은 어느 곳을 점령하든 오로지 인재만을 찾았는데, 역사가들이 이를 기록한 것에는 확실히 그럴 만한 까닭이 있는 것이다. 우리 황조 太宗 文皇帝와 宣宗 章皇帝께서는 모두 太監 鄭和에게 명하여 뛰어난 인재들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해외로 나가도록 하시었다……. 여기에 참가한 인물들의 우람한 체격이나 선박의 웅장함, 재능의 뛰어난 자고로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 황제의 참 뜻이 어찌 먼 나라들에 거대한 규모와 화려함을 과시하고자 하는 데 있었겠는가? 이는 우리 황조의 명성을 사방 오랑캐 땅에 널리 전하여 천하의 중생과 미물들로 하여금 두루 德化를 입어 그 다스림이 있음을 알고 그 지극함을 존송치 않음이 없도록 하고자 함인 것이다. 명을 받들고 갔던 사람들이 몇 천 몇 만이나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 모두가 그 말은 바 일을 다 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는 자들이었다. 우리 山陰의 馬宗道 公은 어떤 사람인가? 公은 재능이 풍부하여 이 일에 우선적으로 선발이 되었으며, 세 차례 해외로 나가 이국을 두루 다니면서도 금은보화는 조금도 사사로이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다만 《瀛涯勝覽》 한 질을 엮어 귀환하였다. 이 책은 해외 이민족들이 사는 지역의 멀고 가까움과 각 나라의 연혁, 국경을 접한 지역, 城邑의 배치, 그리고 그 복식의 다름과 음식의 차이, 형벌 및 禁畵 제도, 풍속과 산물 등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다. 공의 의도는 나라의 道가 천지와 하나 되어 교화가 蠻夷의 땅에 미침이 이토록 창성하였음을 후세 사람이 세세토록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후일 역사가가 이를 크게 기록해서 공의 뜻을 밝혀 蕭何, 房玄齡과 더불어 불후의 이름을 남기게 된다면 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正統 甲子년 음력 9월 하루 전 錢唐 馬敬 씀.

序³⁰⁾

昔蕭³¹⁾何入關, 惟取圖籍,³²⁾ 玄齡克城, 獨采人物,³³⁾ 使民³⁴⁾筆之, 良有以也. 洪惟我朝太宗文皇帝³⁵⁾宣宗章皇帝³⁶⁾咸命太監³⁷⁾鄭和³⁸⁾率領豪俊, 跨越海

30) 이 서문은 國朝典故本에서만 확인된다. 【원주】 國朝典故本은 明 嘉靖 21년(1542)에 쓰여진 필사본으로, 明 宗室 朱當澗이 엮은 총서 《國朝典故》 卷106에 수록되어 있다. 교주자 馮承鈞의 서문에 의하면 《瀛涯勝覽》의 여러 이본들 가운데 저자 馬歡의 원작 계열, 이른바 ‘足本’에 속하는 4개의 현존본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이 역시 적잖은 刪節과 變改가 가해진 刪改本으로 평가된다. 【역주】

31) 蕭: 원본에는 ‘肖’라고 되어 있으나 ‘蕭’로 정정하였다. 【원주】

32) 蕭何入關, 惟取圖籍: 蕭何(BC.257-BC.193)는 沛豐 곧 지금의 江蘇省 豐縣 출신으로, 韓信·張良·曹參과 함께 漢의 대표적인 개국공신이다. 蕭何는 秦의 2대 황제 胡亥의 즉위 원년인 BC.209년에 劉邦을 도와 봉기했다. 劉邦의 군대가 秦의 수도 咸陽을 점령한 후 너나할 것 없이 재물을 약탈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진나라 丞相府와 禦史府에 소장된 호적과 지형, 율령 등에 관한 문서와 서적들을 거둬들여 이후 楚漢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한나라 왕조 경영의 기틀이 될 제도와 법률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入關’은 오늘날 陝西省 西安 일대에 해당하는 ‘關中’ 땅에 들어갔음을 뜻하며, 구체적으로는 당시 秦의 심장부였던 함양성에 입성한 것을 가리킨다. 【역주】

33) 玄齡克城, 獨采人物: 玄齡은 房玄齡(579-648)을 말한다. 齊州 臨淄, 지금의 山東省 濰博市 臨淄區 출신으로, 이름은 喬, 字는 玄齡이며 唐 초기의 名臣이다. 隋 開皇 연간 18세의 나이로 進士가 되어 羽騎尉, 隰城尉를 지냈다. 수나라 말기 천하가 어지러워지자 훗날 唐太宗이 되는 李世民的 세력에 가담해 측근으로 활약하여 唐 개국의 일등공신이 되었다. 李世民的 군대가 한 지역을 평정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진귀한 물건들을 손에 넣기 바쁠 때 방현령만은 인재들을 찾아 모으는 일을 우선하였던 것으로 유명하다. 방현령은 李世民이 황제에 오른 이후로도 오랫동안 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貞觀之治의 전성기를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역주】

34) 使民: 史氏를 잘못 쓴 것으로 추정된다. 【원주】

35) 太宗 文皇帝: 명대 제3대 황제인 永樂帝(1360-1424, 재위1402-1424)로, 이름은 朱棣이며 太祖 洪武帝(朱元璋)의 4째 아들이다. 묘호는 太宗이었으나 후에 成祖로 개칭하였으며, 文皇帝는 시호이다. 洪武帝 시기 지금의 北京을 거점으로 하는 燕王으로 분봉되었으나, 조카인 朱允熥이 2대 황제 建文帝로 등극하여 削封策을 취하자 대립 끝에 수도 南京을 점령하여 皇位에 오른 후 北京으로 천도하였다. 직접 대군을 이끌고 다섯 차례에 걸쳐 몽골 원정을 나서 黑龍江 하류까지 진출하였고, 安南(지금의 베트남) 정벌, 티베트 회유, 남아

外³⁹⁾……與諸番貨。其人物之豐偉，舟楫之雄壯，才藝之巧妙，蓋古所未有。然也⁴⁰⁾
二帝之心，豈眞欲誇多鬪靡⁴¹⁾於遠方哉？蓋聲名施及蠻貊⁴²⁾，使普天之⁴³⁾下含靈

시아로의 대규모 함대 파견 등으로 명의 국위를 아프리카 東岸까지 떨쳤다. 내정에 있어서는 太祖 洪武帝의 방침을 대부분 계승하고 황권을 강화하였으며, 《永樂大全》을 편찬케 하는 등 문화에도 비상한 관심을 가졌다. 그의 치세로 명나라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역주】

- 36) 宣宗 章皇帝: 명대 제4대 황제인 宣德帝(1399-1435, 재위 1425-1435)로, 이름은 朱瞻基이며 영락제의 손자이다. 宣宗은 묘호이고 章皇帝는 시호이다. 조부 永樂帝의 총애를 받아 그의 巡幸·征討를 여러 차례 수행한 바 있다. 1424년에 영락제가 병사하여 부친인 仁宗 洪熙帝가 즉위했으나 바로 그 해에 세상을 떠나 皇太孫이었던 宣德帝가 계위하였다. 등극 이듬해 숙부인 漢王 朱高煦가 반란을 일으키자 親征하여 항복을 받고 1426년에는 兀良哈 三衛의 침공을 격파하여 과단성 있는 무위를 보였으나, 영락제와는 달리 적극적인 대외정책은 쓰지 않았다. 내정 면에서는 楊士奇 등 명신들의 보좌를 받아 치적을 크게 쌓았다. 홍희제와 선덕제 통치 기간은 11년에 불과했지만 업적은 탁월하여 후대에 仁宣之治로 불리며 높이 평가되고 있다. 鄭和의 7차례에 걸친 대항해 가운데 6차까지는 영락제 시기에 진행되었고, 마지막 7차 대항해(1430-1433)만 宣德 연간에 이루어졌다. 【역주】
- 37) 太監: 본래는 고급 관직명이었으나 당대 이후 宦官이 태감을 맡기 시작하면서 차츰 환관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게 되었다. 명대의 경우 궁중에는 환관들이 관리하는 內十二監이 있었는데, 각 부서의 책임자를 太監이라 불렀다. 【역주】
- 38) 鄭和(1371?-1433?): 명대 초기의 환관이자 무장으로, 본명은 馬和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명 三寶(三保)太監이라고도 불렸다. 서역에서 이주해온 雲南 昆陽의 이슬람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1382년 운남이 명나라에 정복된 후 포로로 끌려가 환관이 되었고 훗날 永樂帝가 되는 燕王을 섬기며 총애를 받았다. 靖難의 변 때에는 燕王을 따라 무공을 세워 연왕이 조카 惠帝에게서 제위를 찬탈하고 永樂帝로 즉위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이후 환관의 장관인 太監에 발탁되었으며, 鄭씨 성을 하사받게 되었다. 이어 영락제가 해외 진출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조직한 南海 원정함대의 총지휘관으로 임명되기에 이른다. 정화는 1405년부터 1433년까지 28년 간 총 7차례에 걸쳐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동남아시아에서 인도, 중동, 아프리카에 이르는 대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를 통해 남해 여러 나라의 조공을 촉구하고 새로이 개창한 명나라의 위력을 세계에 과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 동부 해안과 아라비아 동남쪽 연안, 페르시아 만에 이르는 海路를 개척하였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보다 거의 백 년 앞서서 훨씬 더 큰 규모의 함대를 이끌고 이토록 광범위한 지역을 성공적으로 항해한 것은 당시로서는 경이적인 성과였다. 정화는 1433년 제7차 대항해를 마치고 귀국하던 중 객사하였다. 정화의 대원정은 동남아시아로의 화교 진출 증가의 계기가 되면서 그 지역 화교들 사이에서 수호신으로 신격화되기도 했고, 그의 대항해는 명말 《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라는 羅懋登의 장편 章回小說을 낳기도 했다. 【역주】
- 39) 이 구절 바로 다음에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원주】 다음 구절인 “與諸番貨”은 “……와 더불어 해외 여러 나라의 보화들을……” 정도의 의미로 보이나, 누락된 내용으로 인해 정확하고 자연스런 번역이 어려워 번역문에서는 생략하였다. 【역주】
- 40) 也: 이 글자는 잘못 끼여 들어간 것으로 생각된다. 【원주】
- 41) 誇多鬪靡: 당대 韓愈의 「送陳秀才序」 가운데 “책을 읽는 것은 배움으로 삼기 위함이고 말을 기록하는 것은 글을 짓기 위함이지 많음을 과시하고 화려함을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다.(讀書以爲學, 續言以爲文, 非以夸多而鬪靡也.)”라는 구절이 있다. 후에 “夸多鬪靡”라는

蠢動⁴⁴) 悉沾德化, 莫不知有其君而尊⁴⁵) 親焉. 然奉命而往者, 吾不知幾千萬人, 而盡厥事稱厥旨者. 舍吾山陰⁴⁶) 宗道馬公⁴⁷) 其誰乎? 公以才幹優裕, 首膺斯選, 三入海洋, 遍歷番國⁴⁸), 金帛寶貨略不私己, 而獨編次瀛涯勝覽⁴⁹) 一帙以歸. 其載島夷⁵⁰) 地之遠近, 國⁵¹) 之沿⁵²) 革, 疆界之所接, 城郭⁵³) 之所置, 與夫衣服之異, 食用之殊, 刑禁制度⁵⁴), 風俗出產, 莫不悉備. 公之用心, 蓋欲使後之人, 於千載之下, 知國家道同天地, 化及蠻夷, 有若是之盛也. 他日史氏大書, 表公之心, 將與蕭房同垂名於不朽, 詎不偉歟!

말로 독서나 글쓰기에 있어서 양이 많거나 詞藻가 화려함을 과시하는 것을 가리키게 되었다. 【역주】

42) 蠻貊: '蠻貉', '蠻貊'이라고도 쓴다. 본래 南蠻과 北狄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후에 사방의 미개한 민족들을 비유하는 말로도 쓰이게 되었다. 【역주】

43) 之: 원본에는 '下'라고 되어 있으나 '之'로 고쳤다. 【원주】

44) 舍靈蠢動: 舍靈은 내면에 영성을 지니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로, 영성을 지닌 인간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蠢動은 본래 벌레 따위가 꿈틀거리는 것을 뜻하는 말이나, 동물을 두루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역주】

45) '尊' 다음에 '其' 字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 【원주】

46) 山陰: 지금의 浙江省 紹興市에 속하는 옛 縣의 이름으로, 남쪽에 會稽山이 있어 생김 지명이다. 秦나라 때 설치되었고 會稽郡에 속했다. 民國 원년에 山陰과 會稽 두 현을 합병하여 紹興縣이라 부르면서 '山陰'이라는 지명은 사라지게 되었다. 【역주】

47) 宗道馬公: 《瀛涯勝覽》의 저자 馬歡(생졸년 미상)은 明代 초기의 통역관인 通事로, 字가 宗道, 別字는 汝欽, 호는 會稽山樵이며, 浙江 會稽(지금의 紹興) 출신의 回族이다. 어려서 부터 해외지리에 관한 서적들을 탐독했고 이슬람교를 믿었으며 페르시아어와 아라비아어에 정통했다. 일찍이 鄭和를 수행하여 제4차(永樂 11년, 1413), 제6차(永樂 19년, 1421), 제7차(宣德 6년, 1431) 대항해에 참여하였고, 귀국 후 그 견문을 기록한 것이 《瀛涯勝覽》이다. 【역주】

48) 番國: '番'은 울타리를 뜻하는 '蕃'과 의미가 상통하며, 蕃國은 속국 또는 제후국을 뜻한다. 여기서는 '異國'으로 옮겼다. 【역주】

49) 瀛涯勝覽: '瀛'은 큰 바다를, '涯'는 물가를, '勝'은 뛰어난 풍경을, '覽'은 유람하는 것을 가리키며, 제목에서부터 해외의 유기로서 이 책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 마환은 세상 사람들이 동남아에서 아프리카 東岸에 이르는 해외의 실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역의 세계를 상세히 묘사했다. 직접 여행한 21개국의 航路, 海潮, 지리, 국왕, 정치, 풍토, 언어와 문자, 기후, 物産, 공예, 교역, 화폐와 야생 동식물 등을 기록했으며, 1416년부터 집필하여 35년 만인 1451년(景泰 2년)에 완성했다. 이 책은 전통시기 중국과 외국간의 교류사에 있어서 영향력이 큰 역사기록 중 하나로 평가된다. 【역주】

50) 島夷: 먼 남쪽의 오랑캐 또는 그 땅을 가리킨다. 【역주】

51) 國: 원본에는 '圃'라고 되어 있는 것을 '國'으로 수정하였다. 【원주】

52) 沿: 원본에는 '治'라고 되어 있어 '沿'으로 정정하였다. 【원주】

53) 郭: 원본에는 '廓'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郭'으로 고쳤다. 【원주】

54) 度: 원본에는 '席'이라고 되어 있어 '度'로 수정하였다. 【원주】

正統甲子⁵⁵⁾菊月⁵⁶⁾前一日, 錢唐⁵⁷⁾馬敬⁵⁸⁾書.

2.2 영애승람서

내가 예전에 《島夷志略》에 절기와 기후의 다름, 지리와 인물의 차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感慨해 “온 세상이 어찌 이렇게 다른가!”하고 감탄한 적이 있다. 永樂 11년 癸巳년에 太宗 文皇帝께서 칙명을 내리시어 太監 鄭和를 시켜 선단을 이끌고 西洋의 異國들로 가서 조서를 낭독하고 재물을 하사하도록 하셨다. 나는 이국의 책을 번역할 줄 알았기에 말단 사신이 되어 태감어른이 가시는 곳을 따라다녔다. 성난 파도는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거의 수천만 리에 이를 정도로 여러 나라들을 두루 다니면서, 절기와 기후, 지리와 인물을 직접 보고 경험했다.

그런 뒤에 《도이지략》에서 기록한 것이 거짓이 아닐 뿐 아니라 더욱이 매우 기괴한 것들이 기록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각국 사람들의 추하고 아름다움, 지역풍습의 차이 그리고 그 토산품의 다름, 영토 구획 등의 정보를 수집해, 순서대로 배열해서 책을 만들어 《瀛涯勝覽》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 책을 보는 사람이 이국 관련 핵심 정보를 금세 다 파악할 수 있고, 더욱이 성스러운 교화가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먼 이국들에게까지 미쳤음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부끄럽게도 우매하고 일개 보잘 것 없는 사람이 사절단에 끼어서 이 멋진 유람을 함께 했으니 정말로 좀처럼 얻기 어려운 뜻밖의 기회였다.

이 책은 글을 쓰는 데 있어 문장을 꾸미지는 않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썼

55) 正統甲子: 正統(1436-1449)은 명대 제6대 황제 英宗 朱祁鎮의 연호이다. 甲子년은 1444년에 해당한다.

56) 菊月: 음력 9월은 국화가 피는 계절이라 하여 菊月이라고도 불렀다. 【역주】

57) 錢唐: 곧 錢塘으로, 지금의 浙江省 杭州에 해당하는 杭州城의 옛 지명이다. 秦나라 때 會稽郡 산하의 한 縣으로 처음 설치되었고, 唐代에 와서 국호로 인해 避諱하여 錢塘으로 개칭된다. 【역주】

58) 馬敬: 서문의 내용으로 볼 때 《瀛涯勝覽》의 저자 馬歡의 일가로 보이나 자세한 것을 알기 어렵다. 【역주】

을 뿐이다. 이 책을 보는 이들은 나의 지식이 천박하다고 비웃지 말라. 이것으로 서를 삼는다.

大明 永樂 14년 丙申년 11월 1일 會稽山樵 馬歡 畚.

瀛涯勝覽序

余昔觀島夷誌⁵⁹⁾, 載天時氣候之別, 地理人物之異, 慨然嘆曰, 普天下何若是之不同耶. 永樂⁶⁰⁾十一年⁶¹⁾癸巳, 太宗文皇帝⁶²⁾勅命正使⁶³⁾太監鄭和, 統領寶船⁶⁴⁾往西洋⁶⁵⁾諸番⁶⁶⁾開讀⁶⁷⁾賞賜⁶⁸⁾. 余⁶⁹⁾以通譯番⁷⁰⁾書, 亦⁷¹⁾被使末, 隨其

- 59) 島夷誌: 이 책에서는 중간에 汪大淵의 《島夷志略》의 내용을 채록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島夷誌는 《도이지략》을 가리키는 것 같다. 【원주】 《도이지략》은 원래 '도이지'라고 썼고 元대의 민간 항해가인 汪大淵이 해외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견문을 기록한 책이다. 총 1권이고 100여 편의 紀略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서양의 200여개 국가와 지역을 다루고 있으며 그 내용이 상세하고 기록이 정확하여 고대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의 역사와 지리를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저작으로 평가된다. 이 책은 위로는 宋 周去非의 《嶺外代答》, 趙汝适의 《諸蕃志》를 계승하고, 아래로는 明 馬歡의 《瀛涯勝覽》, 費信的 《星槎勝覽》 등에 영향을 주는 등 明清 시대 역사지리 저작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다만, 萬明은 여기서 말하는 '島夷誌'가 이미 산실된 송대 무명씨의 저작이며 元代 汪大淵의 《島夷志略》이 아니라고 보았다. 《島夷志略》은 汪大淵이 송대본 《島夷志》를 근거로 자신의 해외 항해 견문을 추가하여 편찬한 책이라고 지적하였다. 萬明, 《明鈔本〈瀛涯勝覽〉校注》, 北京: 海洋出版社, 2005. 2쪽 참고. 【역주】
- 60) 永樂: 明의 제3대 황제인 成祖 朱棣(1403-1424)의 연호이다. 【역주】
- 61) 十一年: 이 세 글자는 <三寶征彝集前後序>에 근거해 보충했다. 【원주】 馮承鈞의 <瀛涯勝覽校注序>에 따르면 <三寶征彝集>은 《영애승람》의 원작 계열 일본의 하나로 《天一閣書目》 및 《抱經樓藏書志》에 저록되어 있으며, 《抱經樓藏書志》에는 <三寶征彝集前後序>가 수록되어 있다. <三寶征彝集>은 명대의 抄本으로 <三寶征彝集>이라고도 쓴다. 清代에는 '夷'자를 쓰는 것을 기피해 嘉慶 13년(1808)에 范邦甸이 《天一閣書目》을 편찬할 때 그 중 '夷'자를 '彝'자로 고쳐 썼다. 풍승균은 이 필사본의 존재만 알았을 뿐 실제로 자료를 접하지는 못했다. 이 자료는 후에 발굴되어 출간되었다. 자세한 것은 앞의 해제 제3절 참고. 【역주】
- 62) 太宗文皇帝: 명 3대 황제인 成祖 朱棣를 말한다. 【역주】
- 63) 正使: 이 두 글자는 <三寶征彝集前後序>에 근거해 보충했다. 【원주】
- 64) 寶船: 정화가 이끌었던 선단의 대형 선박을 가리키며, 당시에 하사품을 많이 싣고 다녀서 보선이라고 이름붙인 것으로 보인다. 【역주】
- 65) 西洋: 정화는 일곱 차례 항해하면서 20여 나라를 방문했다. 오늘날 중국인들이 南洋 즉 동남아시아로 부르는 곳을 명대에는 東西洋이라 불렀다. 당시 서양은 말레이반도, 인도차이나, 수마트라, 자바, 보르네오 주 해안의 국가들을 가리켰고, 東洋은 말라카 군도, 필리핀 열도, 보르네오 북쪽의 文萊國을 지칭했다. 정화가 항해한 곳은 모두 서양이었다. 참고로 풍승균은 교주자 서문에서 당시의 '서양'은 인도양을 가리킨다고 지적하였다. 【역주】
- 66) 諸番: 광의로는 이역의 오랑캐 나라들을 가리키고, 협의로는 서북 변경의 소수민족들을

所至。鯨波⁷²⁾浩渺，不知其幾千萬里，歷涉諸邦，其天時氣候地理人物，目擊而身履之。⁷³⁾然後知島夷誌所著者不誣，而尤有大可奇怪者焉。於是採摭⁷⁴⁾各國人物之醜美⁷⁵⁾，壤俗之異同，與夫⁷⁶⁾土產之別，疆域之制，編次成帙，名曰瀛涯勝覽。俾⁷⁷⁾屬目者一顧之頃⁷⁸⁾，諸番事實悉得其要，而尤見夫聖化所及，非前代之可比。⁷⁹⁾第愧愚昧，一介微氓，叨陪⁸⁰⁾使節，與斯勝覽，誠千載之奇遇也。是帙也，措意遺詞，不能文飾，但直筆⁸¹⁾書其事而已。覽者毋以膚淺諒焉。是爲序。⁸²⁾大明⁸³⁾永樂十四年，歲次⁸⁴⁾丙申，黃鍾月⁸⁵⁾吉旦⁸⁶⁾，會稽山樵⁸⁷⁾馬歡述。

가리킨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이역의 국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역주】

- 67) 開讀: 공문서나 성명서 등을 대중 앞에서 낭독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황제의 칙서를 낭독한다는 의미이다. 【역주】
- 68) 賞賜: 상이나 재물을 하사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
- 69) 余: 원래는 주로 되어 있었는데 <三寶征彙集前後序>에 따라 고쳤다. 【원주】
- 70) 番: 외국이나 外族을 말한다. 여기서는 이역으로 해석한다. 【역주】
- 71) 亦: 勝朝遺事本에서는 亦으로 썼고, <三寶征彙集前後序>에서는 忝으로 썼다. 【원주】 <勝朝遺事>는 청의 吳爾光이 펴낸 책으로, 勝朝遺事本은 《영애승람》의 원작 계열 주요 이본 가운데 하나이다. 【역주】
- 72) 鯨波: 거칠고 사나운 파도를 말한다. 【역주】
- 73) 目擊而身履之: 이 여섯 글자는 <三寶征彙集前後序>에 근거해 보충했다. 【원주】
- 74) 採摭: 이 두 글자는 원래는 글자 순서가 뒤바뀌어 있었는데 <三寶征彙集前後序>와 <勝朝遺事本>에 근거해 고쳤다. 【원주】 채척은 수집한다는 뜻이다. 【역주】
- 75) 醜美: <三寶征彙集前後序>에는 妍媸으로 되어 있는데 妍媸를 잘못 쓴 것이 틀림없다. 【원주】
- 76) 與夫: '그리고 그/저' 또는 '그/저'의 의미이다. 여기서는 "그리고 그"라고 풀었다. 【역주】
- 77) 俾: 무엇을 하게 한다는 뜻이다. 【역주】
- 78) 一顧: 한번 돌아보다, 세상에 알리다라는 뜻이다. 여기서는 한번 보다는 의미로 옮겼다. 【역주】
- 79) 非前代之可比: 이 여섯 글자는 紀錄彙編本에는 "非前代比"로 되어 있고, <三寶征彙集前後序>에서는 "非前代之可比"로 썼다. 여기서는 勝朝遺事本을 따라 표현이 좀 더 매끄러워졌다. 【원주】 紀錄彙編本은 《영애승람》 원작 계열 이본 중 하나이자 교주자 풍승균이 저본으로 삼은 텍스트이다. 【역주】
- 80) 叨陪: 참가하다, 끼다의 뜻이다. 【역주】
- 81) 筆: <三寶征彙集前後序>와 <勝朝遺事本>에는 모두 筆자가 없다. 【원주】
- 82) 是爲序: 이 세 글자는 <三寶征彙集前後序>에 따라 보충했다. 【원주】
- 83) 大明: 이 두 글자는 <勝朝遺事本>에 따라 보충했다. 【원주】
- 84) 十四年歲次: 이 다섯 글자는 <三寶征彙集前後序>에 따라 보충했다. 【원주】 세차는 '年次'라고도 하며 干支를 말한다. 즉 간지로 경진년을 쓸 때는 "歲次庚辰"이라고 쓴다. 【역주】
- 85) 黃鍾月: 11월을 가리킨다. 고대에는 절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갈대를 태워 재를 만들어서 律管 안에 넣었다. 어떤 절기에 이르면 거기에 상응하는 율관 안의 재가 저절로 날아간다. 黃鍾律은 冬至에 상응하며 11월을 가리켰다. 【역주】
- 86) 吉旦: 이 두 글자는 <三寶征彙集前後序>에 따라서 보충했다. 勝朝遺事本에서는 吉日로

2.3 기행시

황국의 사자가 천자의 조서를 받들어,
 천자의 말씀 선포하러 이역으로 가도다.
 거대한 배 사나운 물결 가르며 대해로 나아가니,
 먼 뱃길에 큰 파도가 끝도 없이 아득히 이어지네.
 큰 물결은 도도하게 아름다운 물보라 일으키고,
 어렴풋한 뭇 산들은 청라가 떠있는 듯.
 점성 신주 항구에 잠시 정박해 쉬고는,
 돛을 올리고 서둘러 자바로 떠난다.
 자바는 중화의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날은 폭폭 찢고 사람과 기물 괴이하구나.
 민머리에 맨발을 하고 오랑캐 말 지껄이며,
 의관은 갓출 줄 모르고 예의도 소홀하네.
 황제의 조서가 선포되는 곳마다 환호성이 터지고,
 야만족 추장들이 앞 다투어 맞이하네.
 멀리서 귀한 물건과 기이한 보물 공물로 바치고,
 은덕에 감격하고 仁義를 우러르며 충성 다짐 하는구나.
 자바에서 서쪽으로 더 가면,
 스리비자야를 지나 말라카에 다다르게 된다네.
 아체 섬은 해류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
 이국 선단 상인들은 이곳을 거쳐야 하는도다.
 여기서부터는 무리를 나뉘 스리랑카로도 가고,
 코친, 캘리컷 거치며 여러 나라로 이어진다네.

썼다. 【원주】 음력 매월 초하루를 가리키다. 【역주】

87) 會稽山樵: 會稽는 원래는 會稽로 잘못 쓰여 있었는데 <三寶征彝集前後序>와 勝朝遺事本에 따라 고쳤다. 【원주】 회계산초는 마환의 호이다. 회계는 고대 중국의 지명으로, 지금의 浙江省 紹興市 일대에 해당한다. 【역주】

약수 남쪽으로는 몰디브 군도가 이어지는데,
 가는 길은 망막하고도 험난하도다.
 서역에도 가보고 싶어 멀리 바라보지만,
 보이는 것이라곤 푸른 하늘에 맞닿은 번쩍이는 물빛뿐.
 뱃사람은 두리번거리며 동쪽과 서쪽을 혼동하니,
 오로지 별자리가 가리키는 대로 남과 북을 정할 밖에.
 호르무즈 해협은 거의 바다 끝인데도,
 장삿길이 이집트와 이어져 있다네.
 일찍이 장건은 세상 끝까지 파견되었다 들었으니,
 당시 은덕이 얼마나 멀리까지 미쳤었던 말인가.
 비천하기 그지없는 서생 노복이건만,
 사절단에 끼어 세 번이나 두루 유람했다네.
 높은 산 거대한 물결은 일찍이 본 적 없고,
 기이한 보배들도 이번에만 처음 봤다네.
 천지를 다 둘러봐도 가이없는데,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모두가 황제의 신민이로다.
 황제께서 혼란스런 중국을 하나로 통일하셨으니,
 고금을 통틀어 그 누가 비할 수 있으리.
 사절단이 늦어질까 걱정하며 수고를 마다않는데
 때마침 남풍이 돌아가는 길 인도해 주네.
 배는 노니는 용과 같이 거대한 물결을 가르고,
 고개를 돌려 보니 안개 너머로 황량한 땅이 아스라하네.
 황국의 수도로 돌아와 황제를 알현하는데,
 황제께 헌상하는 것 하나같이 진기하구나.
 황제께서 보자마자 용안에 기쁨을 드러내시고,
 작위와 봉록 고루 내려주시니 그 은혜가 새롭도다.

회계산초 마환

紀行詩

皇華⁸⁸)使者承天敕⁸⁹，宣布綸音⁹⁰)往夷域。
 鯨舟⁹¹)吼浪泛滄溟⁹²)，遠涉⁹³)洪濤⁹⁴)渺無極。
 洪濤浩浩⁹⁵)涌⁹⁶)瓊波，羣⁹⁷)山隱隱浮青螺⁹⁸)。
 占城⁹⁹)港口¹⁰⁰)暫停愁，揚帆¹⁰¹)迅速來閩婆¹⁰²)。
 閩婆遠隔中華地，天氣煩蒸人物異。
 科頭裸¹⁰³)足¹⁰⁴)語侏儻¹⁰⁵)，不習衣冠疎禮義。
 天書到處多權聲，蠻魁酋長爭相迎。
 南金¹⁰⁶)異寶遠馳貢，懷恩慕義摠忠誠。

-
- 88) 皇華: 중국 使臣을 말한다. 【역주】
 89) 天敕: 천자의 勅書, 詔書를 뜻한다. 【역주】
 90) 綸音: 천자의 말씀, 敎書를 의미한다. 【역주】
 91) 鯨舟: 大舟, 큰 배를 말한다. 【역주】
 92) 滄溟: 큰 바다를 뜻한다. 【역주】
 93) 遠涉: 장거리의 水域을 건너가는 것을 뜻한다. 【역주】
 94) 洪濤: 큰 파도를 가리킨다. 【역주】
 95) 浩浩: 성대하다, 도도하다는 뜻이다. 【역주】
 96) 涌: 《西洋記》에는 湧으로 되어 있다. 【원주】 《西洋記》는 명말에 羅懋登이 정화의 대항해를 그린 장편 章回小說로 원제는 《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이다. 풍승균은 교주사 서문에서 《西洋記》에 《영애승람》의 내용이 상당부분 수록돼 있어 참고 가치가 높다고 평가한 바 있다. 【역주】
 97) 羣: 《西洋記》에는 屢로 되어 있다. 【원주】
 98) 青螺: 원래는 푸른 소라이며, 푸른 산을 비유하는 말로도 쓰인다. 【역주】
 99) 占城: 占波, 참파(Campa). 【원주】 베트남 중남부에 있던 나라 이름이다. 占城은 占波라고도 했으며, 점파의 전신은 漸淦이었다. 베트남 중남부는 근세까지는 인도문명권이였다. 【역주】
 100) 港口: 新洲 港口로, 지금의 歸仁이다. 【원주】 점성 북쪽에 있는 항구로, 중국과 접경지역에 위치하며 후에 歸仁으로 불렸다. 정화의 원정 함대가 이 항구에서 정박하였다. 【역주】
 101) 揚帆: 돛을 올린다. 【역주】
 102) 閩婆: 지금의 (인도네시아) 자바이다. 【원주】
 103) 裸: 《西洋記》에는 跣으로 되어 있다. 【원주】
 104) 科頭跣足: 맨머리와 맨발, 궁핍한 모양을 의미한다. 【역주】
 105) 오랑캐의 말 또는 문화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을 뜻한다. 【역주】
 106) 南金: 중국 荊州·揚州 지방에서 나는 황금으로, 품질이 좋은 것으로 이름이 높다. 그로 인해 귀중한 물건 또는 좋은 재질이라는 뜻으로 비유된다. 【역주】

閩婆又往西洋¹⁰⁷去, 三佛齊¹⁰⁸過臨五嶼.¹⁰⁹
 蘇門荅刺¹¹⁰峙中流, 海舶¹¹¹番商¹¹²經此聚.
 自此分鯨¹¹³往錫蘭¹¹⁴, 柯枝¹¹⁵古里¹¹⁶連諸番.
 弱水¹¹⁷南濱溜山國¹¹⁸, 去路茫茫更險難.
 欲投西域遙凝目¹¹⁹, 但見波光接天綠.
 舟人矯首¹²⁰混西東, 惟指星辰定南北.
 忽魯謨斯¹²¹近海傍, 大宛米息¹²²通行商.
 曾聞博望¹²³使絕域, 何如當代覃恩光.¹²⁴
 書生從役¹²⁵何¹²⁶卑賤, 使節叨¹²⁷部遊覽遍.

107) 西洋: 당시 사람들은 자바의 서쪽을 서양으로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주】

108) 三佛齊: 室利佛逝로, 스리비자야(Srivijaya)이다. 【원주】 이 나라는 7-13세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Sumatra)섬에 있었던 나라로, 三佛齊國이라고도 칭했다. 【역주】

109) 五嶼: 滿刺加, 말라카(Malaka). 【원주】

110) 蘇門荅刺: 당시의 蘇門荅刺는 수마트라(Sumatra) 섬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서북쪽의 아체(Aceh)만을 가리켰다. 【원주】

111) 海舶: 대양을 항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역주】

112) 番商: 외국 상인을 가리킨다. 【역주】

113) 分鯨: 큰 寶船이 여기에 이른 후 선박들을 나누어 여러 나라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원주】

114) 錫蘭: 실란(Ceylan), 스리랑카(Sri Lanka). 【원주】

115) 柯枝: 인도 코친(Cochin). 【원주】

116) 古里: 인도 캘리컷(Calicut). 【원주】

117) 弱水: 신선이 살았다는 중국 서쪽의 전설적인 강이다. 길이가 3,000리나 되며 부력이 매우 약하여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는다고 한다. 【역주】

118) 溜山國: Maldives 군도. 【원주】

119) 凝目: 주시하다, 응시하다는 의미이다. 【역주】

120) 矯首: 머리를 드는 것을 말한다. 【역주】

121) 忽魯謨斯: 오르무즈(Ormuz). 【원주】 오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해협. 【역주】

122) 大宛米息: 원래는 太宛米息으로 되어 있고, 《西洋記》에는 大家米息으로 되어 있다. 처음에는 大宛安息의 오무라고 여겼으나 大宛은 파르가나(Farghana) 분지에 있으며 항해로 지나가는 땅은 아니므로 원문은 大食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傳寫者가 大宛으로 잘못 고친 것 같다. 米息은 《明史》 권332의 「米昔兒」(Misr)로 지금의 이집트(Egypte)를 말한다. 【원주】

123) 博望: 張騫【원주】(?-BC114). 자는 博望이다. 한나라 사람으로, 중국에서 서역으로의 교통로를 공식 개통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 그의 여행으로 서역의 지리·민족·산물 등에 관한 지식이 중국으로 유입되어 동서간의 교역과 문화 교류가 발전하게 되었다. 【역주】

124) 恩光: 임금이나 웃어른으로부터 받는 혜택을 의미한다. 【역주】

高山巨浪罕曾觀，異寶奇珍今始見。
 俯仰堪輿無有垠，際天極地皆王臣。
 聖明¹²⁸⁾一統混華夏，曠古于今孰可倫。
 使節勤勞恐遲暮¹²⁹⁾，時值南風指歸路。
 舟行巨浪若遊龍，回首遐荒¹³⁰⁾隔煙霧。
 歸到京華¹³¹⁾覲¹³²⁾紫宸，龍墀¹³³⁾獻納皆奇珍。
 重瞳¹³⁴⁾一顧天顏喜，爵祿均頒雨露¹³⁵⁾新。¹³⁶⁾

會稽山樵 馬歡

< 參考文獻 >

馮承鈞 校注, 《瀛涯勝覽校注》, 臺灣商務印書館, 1970 (초판 1935).

J. V. G Mills, Ying-yai sheng-lan. 'The overall survey of the ocean's shores' [1433], Cambridge [England] Published for the Hakluyt Society at the University Press, 1970.

馬歡, 《瀛涯勝覽》, 叢書集成初編 影印本, 中華書局, 1985.

-
- 125) 從役: 노역하다, 관리로 부임하다, 奴僕 등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노복의 의미로 풀었다. 【역주】
- 126) 何: 《西洋記》에는 忘으로 되어 있다. 【원주】
- 127) 叨: 《西洋記》에는 三으로 되어 있다. 【원주】
- 128) 明: 《西洋記》에는 朝로 되어 있다. 【원주】
- 129) 遲暮: 晩年, 저녁 무렵, 시간이 늦다, 느리다 등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정이 늦어 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었다. 【역주】
- 130) 遐荒: 외지고 먼 지방 혹은 벽촌의 거친 땅을 의미한다. 【역주】
- 131) 京華: 수도, 경성의 美稱이다. 【역주】
- 132) 覲: 알현하다의 의미이다. 【역주】
- 133) 龍墀: 황제가 있는 건물의 뜰을 뜻하고, 황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역주】
- 134) 重瞳: 겹으로 된 눈동자를 뜻하고, 황제의 눈을 의미한다. 【역주】
- 135) 雨露: 은혜 혹은 은택을 의미한다. 【역주】
- 136) 《西洋記》에 기재된 기행시에는 표현이 다른 부분이 이 밖에도 적지 않다. 여기서는 다만 관련이 있는 것 일부만 언급했을 뿐이다. 【원주】

- 萬明, 《明鈔本〈瀛涯勝覽〉校注》, 北京: 海洋出版社, 2005.
- 馮勝鈞校注, 《星槎勝覽》, 北京: 中華書局, 1937.
- 馮勝鈞校注, 《諸蕃志》, 北京: 中華書局, 1956.
- 余思黎點校, 《殊域周咨錄》, 北京: 中華書局, 1993.
- 向達校注, 《西洋番國志》, 北京: 中華書局, 2000.
- 中國航海史研究會, 《鄭和下西洋論文集》第1集, 人民交通出版社, 1985.
- 小川博 譯注, 《中國人の南方見聞録: 瀛涯勝覽》, 東京: 吉川弘文館, 1998.
- 车復禮·崔瑞德 編, 《劍橋中國明代史》上卷,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8.
- 주경철, 《대항해시대: 해상 팽창과 근대 세계의 형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 미야 노리코 지음, 김유영 옮김, 《조선이 그린 세계지도 - 몽골 제국의 유산과 동아시아》, 서울: 소와당, 2010.
- 티모시 브룩 지음/조영현 옮김, 《하버드 중국사 원·명: 곤경에 빠진 제국》, 너머박스, 2014.
- 宋立民, <〈瀛涯勝覽〉板本考>, 《古籍整理研究學刊》1988年 第二期.
- 唐志撥, <關於鄭和寶船尺度出自瀛涯勝覽的論點質疑>, 《船史研究》1997年 11-12期.
- 向達 校注, 《西洋番國志》, <校注序言>, 北京: 中華書局, 2000.
- 張箭, <馬歡的族屬與〈瀛涯勝覽〉的地位>, 《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科版》2005年, 第26卷.
- 萬明, <馬歡瀛涯勝覽原流考 - 四種明鈔本瀛涯勝覽校勘記>, 《多元視野中的中外關係史研究—中國中外關係史學會第六屆會員代表大會論文集》, 2005.
- Roderich Ptak, "Ma Huan (original author), Wan Ming (ed.) Ming chaoben "Yingya shenglan" jiaozh", *Autour de la peinture à Java. Volume II IN: Archipel* 71(1), 2006.
- 김수연, <정화(鄭和)와 중국의 제국의식>, 《중국학보》제77집, 2011.
- 최수경, <명대 후기 출판을 통한 지리학적 지식의 전파와 그 의미>, 《중국어문논총》제69집, 2015.6.

< Abstract >

A Bibliographical Introduction and Translation with Notes of Yingya Shenglan(瀛涯勝覽)

Choi, Sookyung · Song, Junghua · Jung, Yousun · Kim, Hyomin

In traditional times, China did not consider itself as a part of the world. They imagined that China was the center of the world, and it was surrounded by barbarians. This traditional concept was superficially continued till the time before modern times.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y were understanding the external world long ago. The geographical knowledge and cartography of the Yuan Dynasty and the Ming Dynasty surpassed the Western world. And based on such knowledge and China-centricism, the Ming Dynasty sent an eunuch Zheng He(1371?-1433?)'s marine expedition for seven times to visit Southeast Asia, Middle East, and East Africa. Out of books recording Zheng He's expedition, Ma Huan's *Yingya Shenglan* is recognized the most for its historical/literary value. Ma Huan was a Muslim as an interpreter from a minority Hui tribe. For the interpretation of Arabic, he performed Zheng He's expedition for three times. His *Yingya Shenglan* contains the details of geography, politics, culture, and products of 20 countries in Southeast Asia, Indian Ocean, Middle East, and Africa. This book was initially completed in 1416, and after that, it seems to be modified several times by Ma Huan. And even after that, many literary people transcribed/printed this book, so that there are many editions left so far and each edition shows considerable differences. Roughly classifying them, the type close to the Ma Huan's original could be separated from the type adapted by literary people. We chose the translation of annotation by Feng Chengjun, published in 1935. The translation of annotation by Feng has added the explanation of all sorts of place name and

vocabulary by referring to many editions based on the most excellent edition. The English version and Japanese version of *Yingya Shenglan* have been already released 50 years ago, and there are plenty of relevant researches. However, there have been no researches on *Yingya Shenglan* in Korea. Thus, the annotation and translation of this book are expected to be largely contributing to the relevant researches in the future.

Key Words: *Yingya Shenglan*(瀛涯勝覽), Ma Huan(馬歡), Zheng He(鄭和),
Zheng He's marine expedition, Feng Chengjun(馮承鈞)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8. 4. 23	2018. 5. 12	2018. 5. 15	2018. 5. 29	2018. 6. 30